

SSU: NIVERSE
논술가이드북



송실대학교

THINK DEEPER, WRITE YOUR POSSIBILITY

논술은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질문을 이해하는 깊이가 글의 완성도를 만듭니다.

송실은 그 사고의 깊이에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06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07
전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입시 결과	08
전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	10
• 인문계열	10
• 경상계열	17
• 자연계열	25
논술우수자전형 관련 FAQ	32
모의논술 안내	33
합격자 인터뷰	34
캠퍼스 맵	40

교육부 일반대학 첨단 분야 >> **송실대학교 6개 학과 첨단학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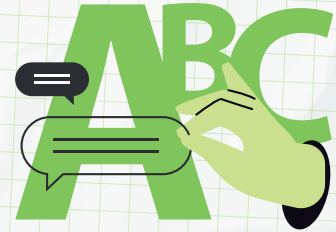
입학정원
총 **82명** 증원

- 첨단 분야 **특화 교육과정 운영**
- 첨단 분야 **신규 우수 교수진 구성**
- 산학협력 프로그램(현장실습 등) 확대 실시**
- 연구 시설 및 인프라 고도화**

출제위원이 직접 알려주는 논술 준비

TIP

- ✓ 본교 논술은 논술고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기본철학에 충실한 편이며 융합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구성하는 능력이 채점의 포인트**가 됩니다.
- ✓ 작년 대비 **답안 글자 및 제시문의 수를 줄이고 난이도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 ✓ 답안 작성 시 “<제시문 가>에서는~”, “<제시문 나>에서는~” 같은 불필요한 문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언어로 창의적인 해석과 구성을 보여주는 답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인문계열 출제위원



경상계열 출제위원

문제 [1]은 평소에 사회 현상 중에서 경제 현상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경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본문에서 답을 찾아 쓸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문제 [2]**는 평소에 '사회·문화' 교과서를 읽고 사회, 문화 현상과 관련된 시사적인 뉴스 기사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비례식이나 평균과 같은 간단한 수식을 이용하여 푸는 문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수학 II와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의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는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송실대학교 경상계열 문제가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 2025년부터 쉽게 출제하고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문제 [1]**은 2025년부터 형식이 유사해졌으므로 2025년, 2026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제 [2]**는 2026년 문제에 큰 변화가 있으므로 2026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송실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논술은 제시된 문장을 읽고 상황을 이해하는 수학적 문해력과, 학생이 이해한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적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교과서의 **도전 문제** 또는 송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읽고 수학적 으로 해석하며 수식을 세워 보는 훈련을 추천합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읽어보고, 본인의 작성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술시험은 정확한 최종답안 자체보다는 최종답안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서술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쉬운 문제를 풀더라도 최종답안만 기록하는 것 대신 최종답안에 이르는 과정을 차분하게 적어 보고,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는지, 혹은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훈련방법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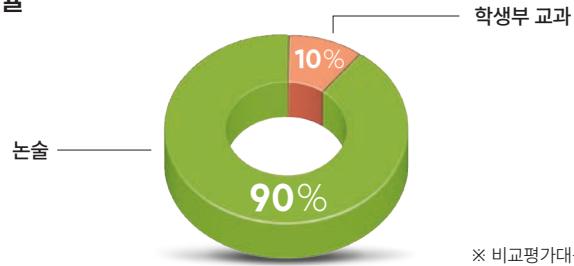
자연계열 출제위원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모집인원

248명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비교평가대상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논술고사 점수에서 환산함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①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구분	평가내용	비고
인문계열, 경상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교과(군)에 속한 전 과목 반영	석차등급, 성취도, 이수단위 고려 / 학년별 반영비율 동일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군)에 속한 전 과목 반영	

② 학생부 교과성적 가중치

구분	공동과목 / 일반선택 (80%)					진로선택 (20%)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인문계열	35	15	35	15	-	100
경상계열	20	30	35	15	-	
자연계열	15	35	25	-	25	

- ※ 진로선택 과목은 계열별 공동과목/일반선택에서 반영하는 교과(군)에 해당하는 과목만 반영
-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군)은 교육부의 교과(군) 분류 체계를 따르며, 고교별로 분류체계가 상이한 경우는 본교의 판단에 의해 반영
- ※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별로 등급 부여 (A=1등급, B=2등급, C=3등급)
- ※ 진로선택 과목은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최대 취득 비율 제한: 3과목 이상 이수 20%(최대), 2과목 이수 18%, 1과목 이수 16%

■ 수능 최저학력기준

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
전 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

-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한해서 인정하며 필수 응시 영역 없음
- ※ 탐구영역은 2과목 중 상위 1과목만 반영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감점	0점		1점		2점		부적격		

- ※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환산총점(100점 만점)에서 차등 감점
- ※ 학교폭력 조치사항 8~9호 대상자는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	자연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5	
		영어영문학과	8			물리학과	3	
		독어독문학과	2			화학과	4	
		불어불문학과	4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4	
		중어중문학과	3			의생명시스템학부	5	
		일어일문학과	2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2
		철학과	3		신소재공학과		12	
		사학과	3		전기공학부		12	
	법과대학	법학과	4		기계공학부		12	
		국제법무학과	2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8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4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전공)	7
			행정학부		6		IT대학	컴퓨터학부
	정치외교학과		5		지능전자공학부	24		
	정보사회학과		4		글로벌미디어학부	8		
	언론홍보학과		4		SI대학	SI소프트웨어학부	19	
	평생교육학과		3			합계		248
경상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5					
		글로벌통상학과	10					
	경영대학	경영학부	16					
		회계학과	2					
		벤처중소기업학과	7					
		금융학부	2					

■ 전형일정

고사일자

2026.11.21.(토)

계열	고사시간 (100분간)	출제방향	출제범위(예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항 수
자연	1교시 (09:30 입실완료 / 10:00 ~ 11:40)	•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수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문제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2~4 문제
인문	2교시 (14:30 입실완료 / 15:00 ~ 16:40)	• 접근방식이 다양한 비구조화된 문제를 통해 논지의 효과적 전개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 제시문의 주제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교과(군)에 속한 공통/일반선택 과목	
경상		• 도표, 수식 및 그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종합적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 경제적 지식을 사용하여 정량적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수학, 수학 I, 사회·문화, 경제	

※ 지원자 수가 교내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 기출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입학전형안내' → '수시' → '기출문제' 참고

※ 고사장소, 입실가능시간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공개함(2026.11.17.(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전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입시 결과

인문, 경상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 경쟁률	등록 인원	총원합격		논술 평균 (80점 만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비율 (2026학년도: 2합 5등급)	
						총원인원	총원율			
국어국문학과	4	172	43.0:1	10.0:1	4	1	25%	68.4	42.6%	
영어영문학과	8	404	50.5:1	15.6:1	8	4	50%	63.2	51.9%	
독어독문학과	2	79	39.5:1	7.5:1	2	0	0%	72.0	42.9%	
불어불문학과	4	174	43.5:1	10.5:1	4	3	75%	61.2	43.8%	
중어중문학과	3	130	43.3:1	13.7:1	3	0	0%	70.4	54.7%	
일어일문학과	3	134	44.7:1	10.3:1	3	4	133%	61.9	46.3%	
철학과	3	122	40.7:1	10.3:1	3	0	0%	80.0	50.8%	
사학과	3	114	38.0:1	11.0:1	3	0	0%	68.0	53.2%	
법학과	4	214	53.5:1	14.0:1	4	2	50%	61.2	47.5%	
국제법무학과	2	80	40.0:1	9.5:1	2	0	0%	68.8	40.4%	
사회복지학부	4	174	43.5:1	9.8:1	4	2	50%	63.0	44.8%	
행정학부	6	311	51.8:1	15.0:1	6	4	67%	60.3	54.5%	
정치외교학과	5	262	52.4:1	14.6:1	5	1	20%	59.4	52.5%	
정보사회학과	4	199	49.8:1	13.3:1	4	0	0%	61.8	50.5%	
언론홍보학과	4	211	52.8:1	16.0:1	4	0	0%	53.4	54.2%	
평생교육학과	3	113	37.7:1	11.7:1	3	0	0%	70.9	50.0%	
경제학과	5	122	24.4:1	5.0:1	5	1	20%	69.6	46.3%	
글로벌통상학과	10	269	26.9:1	5.3:1	10	1	10%	71.8	44.5%	
경영학부	16	493	30.8:1	6.8:1	16	3	19%	67.1	53.7%	
회계학과	2	51	25.5:1	6.0:1	1	0	0%	64.0	52.2%	
벤처중소기업학과	7	166	23.7:1	5.1:1	7	0	0%	74.3	49.3%	
금융학부	2	44	22.0:1	5.0:1	2	0	0%	80.0	52.6%	

* 실질경쟁률: 수능최저 미충족 인원, 사정제외자(논술 결시자 등)를 제외한 경쟁률

자연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 경쟁률	등록 인원	총원합격		논술 평균 (80점 만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비율 (2026학년도: 2합 5등급)	
						총원인원	총원율			
수학과	5	162	32.4:1	9.0:1	5	2	40%	79.4	47.4%	
물리학과	4	157	39.3:1	10.8:1	4	0	0%	76.8	45.7%	
화학과	4	123	30.8:1	8.8:1	3	2	50%	72.3	58.3%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4	111	27.8:1	8.3:1	4	1	25%	66.3	55.9%	
의생명시스템학부	5	225	45.0:1	16.0:1	5	1	20%	80.0	65.0%	
화학공학과	12	415	34.6:1	10.2:1	12	0	0%	71.8	54.0%	
신소재공학과	12	453	37.8:1	11.9:1	12	1	8%	76.7	57.4%	
전기공학부	12	407	33.9:1	10.7:1	12	5	42%	74.3	60.1%	
기계공학부	12	460	38.3:1	12.6:1	12	6	50%	74.8	53.7%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8	310	38.8:1	12.8:1	8	2	25%	72.1	57.3%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전공)	7	348	49.7:1	15.0:1	7	0	0%	74.1	57.1%	
컴퓨터학부	10	369	36.9:1	11.7:1	10	3	30%	78.6	54.9%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	12	433	36.1:1	13.9:1	12	4	33%	77.6	64.0%	
전자정보공학부(IT융합)	12	475	39.6:1	13.3:1	12	4	33%	74.3	57.1%	
글로벌미디어학부	8	228	28.5:1	7.6:1	8	5	62%	68.3	56.5%	
AI소프트웨어학부	17	793	46.6:1	16.8:1	17	3	18%	79.2	61.2%	

* 실질경쟁률: 수능최저 미충족 인원, 사정제외자(논술 결시자 등)를 제외한 경쟁률

202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변경사항

논술 반영비율 확대

80% → 90%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2개 합 5등급 → 2개 합 6등급

(전 계열 지정 과목 제한 없음)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실용국어,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소비사회, 사회적 기호(記號), 포장, 물신화, 소외

예상 소요 시간

60분

문제 1

<보기> 글에 나타난 '포장'의 역할이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문 [가], [나], [다]를 모두 활용하여 논하시오. (950 ± 150자, 60점)

< 보기 >

쇼핑카트를 미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 자동문이 열리고 우리는 감정과 취향이 전투적으로 활성화되는 검투장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는 새삼 생각한다. 난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난 인생에서 근사한 것을 즐기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내가 바라는 인생인가?

현대인의 삶에서 슈퍼마켓만큼 강렬한 시각적 경험과 팔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무수한 상품을 제공하는 곳은 없다. 마라케슈, 캘커타, 혹은 홍콩의 전통시장이 유명해도 슈퍼마켓 앞에서는 어립없다. 물론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여러모로 다르다. 청각적 경험이 다르고, 후각적 경험이 다르다. 먹는다는 행위와 관련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표현되는 방식도 다르다. 전통시장에서는 채소가 뿌리와 줄기가 온전한 상태로, 고기는 갈고리에 걸린 가축의 사체에서 베어져 팔린다. 슈퍼마켓의 먹거리들은 다른 데서 가공되거나 적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손질된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현대적인 소매점에서는 상품이 그것을 판매하는 특정한 사람의 개성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슈퍼마켓은 판매 속도를 저하하는 사회적 교류의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한다. 사람 대신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포장이다.

현대 생활에서 포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장은 어디에나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포장은 개탄과 무시의 대상이기도 하다. 깨어 있는 동안 우리의 시야 속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포장이 존재한다. 포장은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이지만 너무도 두루 퍼져있는 까닭에 대개는 우리의 의식적인 주의를 끌지 못한다. 일단 쇼핑카트를 밀기 시작하면 장소의 성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장들 사이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포장에 함축된 의도는 여러 가지다. 쇼핑객의 감정을 매혹하고, 기발한 디자인으로 상품의 쓸모를 부각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포장의 두드러진 공헌은 대규모 유통과 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이제 포장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포장은 판촉 활동의 결정적인 최종 성과물이다. 정교한 포장은 구매 결정에 필요한 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포장은 그 자체로는 본래 별 특징이 없는 물품이나 제품에 강력한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한다. 대개 소비자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광고를 통해 곧 다가올 쇼핑 경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고, 구매 결정을 마무리 짓고, 쇼핑카트 안에 들어앉는 것은 포장이다. 광고가 소비자를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포장은 유혹 그 자체다. 물건이 상품이 되게 하는 것은 대개 포장이다.

포장이 생산자나 판매자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포장은 쇼핑객의 구매 결정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포장은 약속하고 예측하게 한다. 소비자가 포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익숙한 포장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상품들이 때때로 '새로운' 혹은 '더 좋아진'이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되지만, 실제로 그 내용물이 크게 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제시문>

[가] 컴퓨터게임에는 넘치는 마력이 있다. 사회적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억압이 최대한 배제된 자유의 세계다. 이 공간에서는 실세계에서 불가능한 다수의 분신과 다중 역할의 폭발적 창조와 놀이가 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 실존인물 홍길동은 하나의 실물로 응고되어 있지만 사이버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다수의 ‘아바타’로 변신하고 실세계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페르소나(가면을 쓴 인격)’가 되어 색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페르소나들에게 성, 나이, 인종, 계급, 층성 집단, 직업 등 실세계의 구분 범주들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런 변신, 이동, 다중 역할의 경험은 마술적 스텔로 가득하다. 다수 이용자가 참여하는 다중 역할놀이 같은 게임의 경우 아이들은 그 만들어진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바라던 인물이 되어 그가 원했던 역할을 수행한다.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어 보인다.

[나]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근원이고, 활동적이며, 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육체의 실질적인 가치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의 실질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아름다운 몸, 욕망하는 몸, 즐기는 몸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건장한 몸매와 미모 그리고 에로티즘을 지향한다. 이렇게 재발견된 자신의 몸에 스스로 도취되는 동안 몸은 하나의 사물로 간주되며, 사물이 된 육체에서는 경제적 수익성이 발생한다. 결국 몸의 사용가치는 사라지고 기능적인 교환가치만 남았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는 비싼 값에 팔리는 고가의 재화가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몸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자기 결정의 대상이다. 뛰어난 몸매를 통해 부와 인기를 거머쥐는 연예인들의 예가 증명하듯 돈도 벌고 권력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몸을 가꿀 여유가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다.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믿으며 외모에 집착하는 탓에 외모가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학점이 좋아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은 호소한다.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취업성형’까지 등장했다. 육체는 재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물이며, 가장 귀중한 교환물이다. 이제 육체는 한 개인이 가진 자본, 재화 그리고 경제적 의미에서의 생산수단이 되었다. 아름다운 용모와 멋진 몸매는 마치 ‘위세상품’인 양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신분을 높여 준다.

[다] “한국 시장이 마케팅의 시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우리의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특히 고급 소비재를 수용하는 속도가 빨라서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제품에 대한 반응을 타진한 뒤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소비 시장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그러나 단 한순간 단 한 걸음이라도 남에게 뒤처질세라 허둥지둥 달려가는 우리의 가쁜 숨소리를 또 여기서도 듣는 것 같아 반드시 기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이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빨리 낡아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뜻도 된다. 어제 빛났던 물건이 오늘 낡은 버전이 되어버리며, 내일 내리게 될 구매 결정이 모래는 벌써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증명된다.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요란을 떨며 장만했던 가구와 전자 제품들은 손때가 묻기도 전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할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고, 10년을 살았던 아파트도 거기 쌓인 추억이 없다. 심지어는 주소를 기억하기조차 어렵다. 마음속에 쌓인 기억이 없고 사물들 속에도 쌓아둔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처음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오직 앞이 있을 뿐 뒤가 없다. 인간은 재물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저축한다. 그날의 기억밖에 없는 삶은 그날 벌여 그날 먹는 삶보다 더 슬프다.

이 슬픔이 유행을 부른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교섭해온 흔적이 남지 않고, 삶이 진정한 기억으로 그 일관성을 얻지 못하면, 이 삶을 왜 사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삶이 그 내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밖에서 생산된 기호로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가지가지 유행이 밖에서 생산된 바로 그 기호다. 밖에서 기호를 구해 의미의 자리를 메울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밖의 기호 속에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행의 문화는 열등감의 문화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인다.

출제의도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간이 포장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다양한 층위의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포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숙고한 글쓰기를 유도하고자 했다. 소비사회의 포장은 현실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작동하며, 인간에게 적용되어 인간이 사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결국 삶의 의미를 인간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호를 통해 찾음으로써 인간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문을 제시했다. 제시문을 기계적으로 요약하기보다는 지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문항이다.

문항해설**<보기>**

<보기> 글은 대중문화에 드러난 포장 행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문화비평이다. 전통시장에서의 상품 판매 방식과 달리 슈퍼마켓에서는 포장이 큰 역할을 한다. 대규모 유통을 위해 판매 속도를 신속하게 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회적 교류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포장이다. 포장은 소비를 촉진시키며 소비자로서 하여금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컴퓨터 게임의 가상 세계의 특징을 설명한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역할을 다수의 '아바타'로 변신하고 자신이 원하는 '페르소나'가 되어 색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역할 놀이의 공간이다.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현대인들이 인간의 몸을 조작 가능한 재화로 보는 시각을 설명한다. 현대인들은 몸의 실질적 가치보다는 돈과 권력을 얻는 생산 수단으로 보고 몸을 가꾸는 것을 투자로 이해한다. 몸을 가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그러한 현상이 갖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내부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의 기호로 삶의 의미를 대신하기 때문에 타인 지향적이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48자)

현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슈퍼마켓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포장으로 인해 우리가 구매하는 평범한 물건들이 유혹하는 상품이 되고 대규모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포장 행위는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필요한 신뢰를 주는 수단이자, 소비자에게는 구매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러한 매개체로서 포장은 사회적 교류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판매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물건의 실질적인 내용보다 포장이 유혹하는 문구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포장은 현실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조차 작동한다. 컴퓨터 게임에서 멋진 아바타로 변신하고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페르소나'가 되어 현실의 자신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역할로 포장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꿈도 꾸지 못할 존재가 되어 가상 세계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의 어떤 놀이보다 강력한 매력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상품에 적용되는 포장 행위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인간이 사물화되는 문제를 지닌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기보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 생산수단으로 여길 때 외모는 개인을 평가하고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몸을 가꾸는 데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한국은 국제 소비 시장에서 마케팅의 시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포장의 유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가장 빠르다는 의미이다. 빠른 속도로 경쟁하듯 소비하는 문화에서는 "마음속에 쌓인 기억이 없고, 사물들 속에도 쌓아둔 시간이 없으니" 마음이 공허하다. 시장에서 생산된 값비싼 기호로 텅 빈 삶을 채우려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쌓은 기준이 없기에 아무리 소비해도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 없다. 포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인간에게 적용될 때 인간을 상품화시키고 삶의 허무를 야기한다.

채점기준

※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답안의 경우 1점
가점 부여 가능

- 8~10점** '포장'의 역할, 인간의 상품화, 포장과 가상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논리적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하면서 설득력 있게 논한 경우
- 6~7점** '포장'의 역할, 인간의 상품화, 포장과 가상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단순 요약의 넘어 핵심개념을 드러냈으나 그것의 유기적 연결성은 다소 미흡한 경우
- 4~5점**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시문을 기능적으로 요약한 경우
- 1~3점** 답안 분량을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 0점** 백지 제출 혹은 제시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쓴 경우

문제 2**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
 핵심개념 및 용어 민주주의, 다수결, 만장일치

예상 소요 시간

40분

문제 2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 원칙을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의사결정 형태를 논박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시오. (650 ± 100자, 40점)

<제시문>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하는 정치체제로 알려져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동체의 다수가 원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작동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의회에서의 표결이나 대통령 선거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다수결은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사결정 방식도 존재한다.

첫 번째 방식은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만장일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수결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소수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은 다수의 의견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므로 소수는 다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결에 기초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만장일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결정에 반영되는 방식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 훨씬 더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소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필요성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적지 않은 정치철학자들이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선동에 취약한 무지한 다수의 선택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는 위험한 제도로 평가했다.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다수 대중에게 의사결정을 맡겼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 공동체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식과 덕성을 갖춘 소수에게 의사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제의도



본 문항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응시자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사용되는 다수결 원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응시자들은 제시문에 소개된 두 종류의 의사결정 방식(만장일치/현명한 소수에 의한 결정)과 다수결 원칙을 각각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결 원칙이 완벽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 방식의 기본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항해설



본 문항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원리로 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을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응시자들은 제시문을 통하여 다수결 원칙을 대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의사결정 방법들-만장일치,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것-을 소개받고, 이 두 가지 방식과 다수결 원칙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당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제시문에서 소개된 만장일치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장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구성원 수가 많은 현대 국가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여 타협을 통한 절충안이 만들어지기 어려워 만장일치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대안들을 절충하여 이끌어 낸 결과가 사회 구성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다수결은 만장일치와 비교하여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수결은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

제시문에서 제시된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방식은 복잡하고 전문화된 오늘날 효율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당장 어떠한 기준으로 소수를 선발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봉착한다. 해당 소수를 투표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요구한다. 현명한 소수이므로 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면,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해당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치적 평등이란 모든 시민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소수의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러한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에 다수결은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개인의 정치적 가치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가장 높은 가치를 획득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더 가깝다. 더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와 같이 시민들 대부분이 높은 교육을 받고 정보가 공개된 사회에서는 소수집단보다 다수집단이 편파성에 빠질 위험이 더 적고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도 높다.

제시문에 소개된 두 관점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수결의 원칙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것이 지닌 위험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은 적어도 두 관점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제도로 더 적합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닌 위험성(배제되는 소수의 문제, 중우정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739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 원칙을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 원칙이 만장일치나 소수에게 위임한 의사결정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만장일치 방식보다 다수결 원칙이 나은 이유는 만장일치 방식이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아 더 공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여 하나로 모으고 다름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 번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토록 오래 걸리게 된다면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더 많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만장일치는 허점이 많은 이상적이지만 한 방식이라 오늘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로 소수의 임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 오늘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이 방식 또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엘리트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대중을 선동하여 다수의 선택에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존재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여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대중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채점기준

8~10점

제시문에 소개된 두 가지 의사결정 방식인 '만장일치'와 '현명한 소수가 결정'에 대해서 각각 한계를 지적하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을 사용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경우(아래 표 참조). 단 8-10점 사이의 차이는 생각을 풀어내는 논리력과 구성의 적절성, 문장력의 정도를 반영

두 가지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와 다수결 원칙의 필요성 **참고**

구분	한계	다수결 원칙의 필요성
만장일치	비효율적, 비현실적(현대 사회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 만장일치 절충안의 한계(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함)	사회의 가장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면서(가장 많은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
소수결정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평등 위배, 현명한 소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현명한 소수가 늘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음	다수결은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에 기초하여 가장 많은 가치를 획득한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 현명한 소수를 선택할 때 (대의 민주주의)도 다수결 사용. 현대 사회에서 집단지성이 소수의 엘리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음

6~7점

제시문에 소개된 두 가지 대안에 대한 한계와 다수결 원칙의 필요성 중 하나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두 가지 대안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이 불완전한 경우

4~5점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답안 구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혹은 제시문에 소개된 두 가지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 및 다수결의 필요성 중 일부만 답변한 경우

1~3점

제시문을 활용하여 답안 작성을 시도하였으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였거나 설명이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0점

백지 제출, 미완성 혹은 제시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쓴 경우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자유무역, 보호무역, 환율, 물가

예상 소요 시간

50분

문제 1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답하시오. (800 ± 80자, 50점)

<제시문>

[가] 자유무역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 활동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자유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국 기업이 타국 기업과 경쟁을 통해 기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 증가는 정부의 고용 창출과 자국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역 당사국 간에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 간 경쟁력 차이로 인해 빈부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는 수출입의 증가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며, 국제경제 상황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된다.

[나] A국은 오랜 기간 저렴한 제품의 수입을 대폭 확대해왔다. 그 결과 A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일부 자국 기업이 파산하여 실업률이 상승하였다. 그러자 A국은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상대국이 A국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였다. 이에 대해 여러 무역상대국은 A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B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A국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주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여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B국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B국의 상품수지도 악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국 정부는 A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보복을 피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자유무역협정(FTA)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손실을 만회하면서 여전히 자유무역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 C국은 원자재 중심의 수출국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자국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A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C국의 수출도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C국은 상품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환율변동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하였다.

[마] D국은 개방 경제 국가로 자유무역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D국은 FTA를 통해 A국에서 농·축산품을 수입하고, A국에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해왔다. 그런데 제시문 [나]와 같이 A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자 C국이 대응조치로 핵심 소재와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여 D국은 필요한 소재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D국은 C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의 소재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원자재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의사항: 제시문 [나], [다], [라], [마]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임>

[문항 1]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1-1) 자유무역이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제주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1-2) A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B국이 시행한 대응조치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문항 2] 제시문 [가], [나], [라], [마]를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2-1) C국과 같은 원자재 중심의 수출국이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때문에 겪는 구조적 약점을 제시하고, 국내 물가 상승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 (2-2) A국과 C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D국이 시행한 정책이 자국의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출제지도



[문항 1-1]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이해도와 자유무역의 긍정적인 영향이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 1-2]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자유무역 지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가 아닌 대응조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 2-1]

제시문 [가], [나], [라], [마]를 참고하여 원자재 중심 수출국이 국제무역 환경 변화로 직면할 수 있는 약점을 이해하고 상품수지, 수출, 환율, 물가변동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 2-2]

제시문 [나], [라], [마]를 참고하여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해설



[문항 1-1]

자유무역이 경제주체인 소비자(가계), 기업, 정부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경제주체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각 주체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문항 1-2]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고 제시문 [나]의 B국 상황을 이해하여, 자유무역 지지 국가가 보호무역 확산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 의하면 B국은 A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 감소와 상품수지 악화라는 손실을 보았지만, 여전히 자유무역의 이점을 활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 자유무역협정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2-1]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원자재 중심 수출국이 국제무역 환경 변화로 가지는 구조적 약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라]에서 C국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글로벌 수요 둔화 및 A국의 수입 규제로 수출이 감소하였고, 상품수지가 악화하면서 환율 상승(평가절하)에 의한 국내 물가 상승을 겪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 상품수지 불안정, 환율과 물가 영향 등 구조적 한계 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단순 현상 설명이 아니라 인과관계 기반의 설명이 요구된다.

[문항 2-2]

제시문 [마]에 나타난 D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무역환경 변화로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이 자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에서 D국은 주요 무역상대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핵심 소재와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특정국 의존도 완화 정책을 병행하였다.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안정적으로 소재를 확보하고 원자재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리스크 분산)로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책이 수출을 통제하는 교역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면 더욱 우수한 답안이 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807자)

[문항 1-1]

자유무역은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주고, 기업은 기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고용 창출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자국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문항 1-2]

B국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협정 다변화 정책을 통해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문항 2-1]

C국과 같은 원자재 수출 중심 국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제 경기가 둔화하면 수출이 감소한다. 수출 감소가 장기화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한다. 또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국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 (국내 물가상승 이유를 순서대로 제시해야 함)

[문항 2-2]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은 상대국의 수출 제한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다. D국이 시행한 원자재 수입국 다변화 전략은 특정 국가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C국이 소재와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D국은 직접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무역마찰을 피할 수 없다.

채점기준

3점	<p>[문항 1-1]</p> <p>평가기준 1: 경제주체인 소비자(가계)의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 구매 명시 평가기준 2: 경제주체인 기업의 기술과 품질 향상 명시 평가기준 3: 경제주체인 정부의 고용창출, 자국 산업 성장 명시</p> <p>*참고 1: 경제주체와 합당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각 1점 부여 *참고 2: 경제주체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0.5점만 부여 *참고 3: 경제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합당한 이유가 명시된 경우 0.5점만 부여</p>
2점	<p>[문항 1-2]</p> <p>평가기준 4: B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제시 평가기준 5: 자유무역협정의 다변화 전략 제시</p>
3점	<p>[문항 2-1]</p> <p>평가기준 6: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구조적 약점 명시) 평가기준 7: 수출이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 누적 명시 평가기준 8: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입품가격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명시 (순서대로 명시해야 함)</p> <p>*참고 1: 평가기준 7, 8에서 물가 상승요인 4가지 모두(수출 감소, 상품수지 적자 누적, 환율 변동, 수입품 가격상승) 적혀 있어야 2점 부여, 1가지 누락 시 각 0.5점 차감</p>
2점	<p>[문항 2-2]</p> <p>평가기준 9: C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을 명시 평가기준 10: D국이 필요한 소재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명시</p> <p>*참고 1: A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경우 1점만 부여 *참고 2: 소재 확보와 원자재 확보만 쓰는 경우 1점만 부여 *참고 1을 쓰고 '평가기준 9' 혹은 '평가기준 10'을 쓰는 경우 2점 부여 *참고 2를 쓰고 '평가기준 9'를 쓰는 경우 2점 부여</p>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수학
핵심개념 및 용어 비례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예상 소요 시간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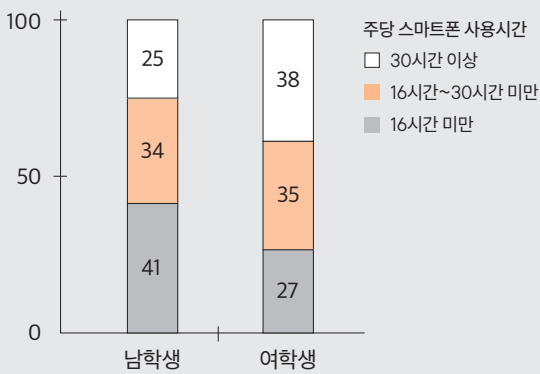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답하십시오. (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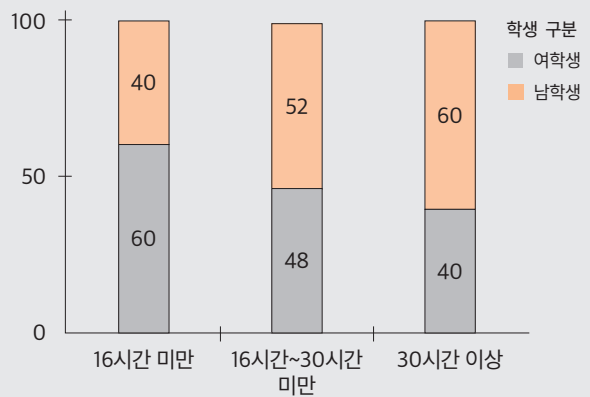
<제시문>

[가] 다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질문지법)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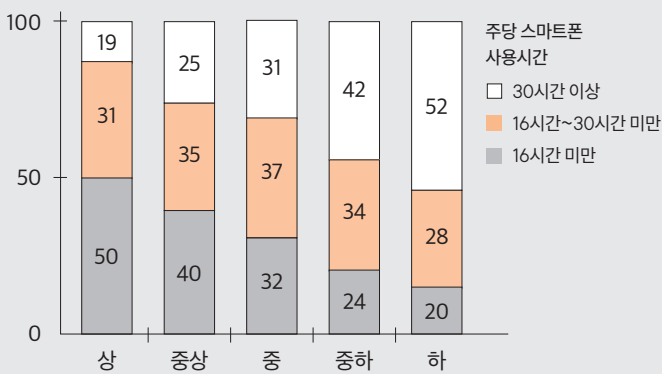
<자료 1> 학생 성별 사용시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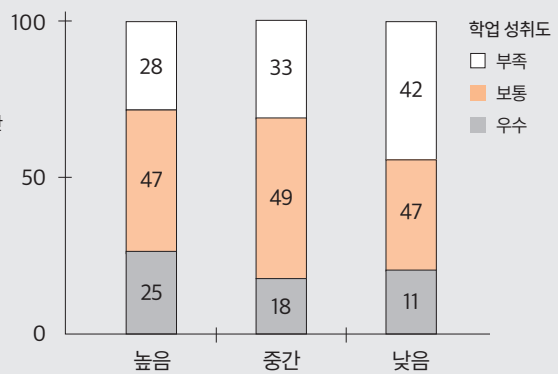
<자료 2> 사용시간별 남녀 학생비율(단위: %)



<자료 3> 학업 성취도별 사용시간 비율(단위: %)



<자료 4> 자기조절능력별 학업 성취도 비율(단위: %)



[나] A 조사기관은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의 수와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의 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들 중 상당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이나 집단의 가치와 의도가 담겨 있고, 보편성뿐만 아니라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특수성도 함께 나타난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에는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한다. 즉, 인과관계가 뚜렷하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라] B 지역 신문에 '물놀이 사고의 원인, 아이스크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물놀이 사고 건수가 함께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두 수치가 함께 증가한 사실과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아이스크림이 물놀이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져서 아이스크림의 판매량뿐만 아니라 물놀이 방문객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 양(+)의 상관관계: 두 변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의 관계를 말한다.

※ 음(-)의 상관관계: 두 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의 관계를 말한다.

<주의사항: 제시문 [가], [나], [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임>

[문항 1] 제시문 [가]의 [자료 1]과 [자료 2]를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남학생의 수가 28,000명이라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여학생은 몇 명인지 쓰고, 계산 근거도 함께 제시하십시오.

[문항 2] 제시문 [가]의 [자료 3]과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10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답하고, [자료 3]에서 답변의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문항 3] 제시문 [가]의 [자료 4]와 제시문 [다], [라]를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제시문 [나]의 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이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출제의도



[문항 1]

그래프는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치적 자료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요약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프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자료들이 어떤 방법으로 요약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1]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막대그래프에 반영된 자료의 특성(수치, 비율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2]

수집된 항목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적인 과정이다. [문항 2]는 설문 자료에 포함된 항목들(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 학업 성취도)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3]

통계에서 주의할 점은 자료들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해도 인과 법칙을 발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적 경험이나 믿음, 단순한 상관관계의 존재를 근거로 인과 법칙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항 3]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해설



[문항 1]

제시문 [가]의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막대그래프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녀 학생을 성별과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학생의 수를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문항 1]은 비율로 표시된 그래프의 실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1)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학생의 수가 28,000명이고, 제시문 [가]의 [자료 1]에서 남학생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남학생의 비율이 25%이므로 주당 3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남학생의 수는 7,000명(=28,000×25%)이다.

2)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학생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여학생의 수를 x 라고 하면, 제시문 [가]의 [자료 2]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남녀 학생의 비가 60%(여):40%(남)이므로 비례식은 $6:4=x:7,000$ 이 된다. 비례식을 통해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여학생의 수(x)를 구하면

$$x = (7,000 \times 6) \div 4 = 10,500 \text{ 이다.}$$

[문항 2]

제시문 [가]의 [자료 3]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분류 내에서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분류된 학생의 수를 비율로 표시한 막대그래프이다. [문항 2]는 제시문 [가]의 [자료 3]의 내용을 이해한 후 내용을 해석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의 [자료 3]은 학업 성취도가 "상→중상→중→중하→하"의 순서대로 낮아질수록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은 일관되게 증가하고,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6시간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은 일관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업 성취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의 관계가 있으므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문항해설



[문항 3]

[문항 3]은 상관관계 존재가 반드시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의 [자료 4]는 자기조절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인과 관계가 뚜렷하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라]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물놀이 사고 건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물놀이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기온 때문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와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의 수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학업 성취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에 근거한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제시문 [가]의 [자료 4]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제시문 [나]의 찬성 이유의 문제점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사용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시답안

[문항 1]

정답 :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여학생의 수는 10,500(명)이다.

(1)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학생의 수가 28,000명이고, 제시문 [가]의 [자료 1]에서 남학생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남학생의 비율이 25%이므로 주당 3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남학생의 수는 7,000명 (=28,000×25%)이다.

(2)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여학생의 수를 x 라고 하자. 제시문 [가]의 [자료 2]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남녀 학생의 비가 60%(여):40%(남)이므로 비례식은 $6:4 = x:7,000$ 이 된다. 비례식에서 x 를 구하면

$$x = (7,000 \times 6) \div 4 = 10,500$$

[문항 2]

정답 :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제시문 [가]의 [자료 3]은 학업 성취도가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의 순서대로 낮아질수록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은 일관되게 증가하고,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6시간 이하인 학생들의 비율은 일관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업 성취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의 관계가 있으므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6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은 학업 성취도의 변동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지만, ②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우수한 그룹(상)에서는 19%로 가장 낮지만,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수록(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그 비율은 일관적으로 증가하며, 결국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그룹(하)에서는 52%로 가장 높다. 반면 ③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6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우수한 그룹(상)에서는 50%로 가장 높지만,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수록(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그 비율은 일관적으로 감소하며, 결국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그룹(하)에서는 20%로 가장 낮다.

따라서 ② 또는 ③에 근거하여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감소)할수록 학업 성취도는 낮아지는(높아지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예시답안

[문항 3]

[자료 4]는 자기조절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라]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물놀이 사고 건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물놀이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기온 때문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 건수와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제시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학업 성취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에 근거한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료 4]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조절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추론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이 학업 성취도와 스마트폰 사용 모두에 준다고 생각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제시문 [나]의 찬성 이유의 문제점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사용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채점기준

2점	[문항 1]	<p>평가기준 1: [자료 1]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남학생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남학생의 비율이 25%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학생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남학생의 수를 7,000명으로 계산하고, [자료 2]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녀 학생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남녀 학생의 비가 6(여학생 수):4(남학생 수)임을 파악하여 $6:4 = x:7,000$의 비례식을 제시하거나 비례식이 아니더라도 타당한 계산 근거를 제시</p>
2점		<p>평가기준 2: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학생 중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여학생의 수를 10,500(명)으로 정확하게 계산</p>
1점	[문항 2]	<p>평가기준 1: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업 성취도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명시</p>
1점		<p>평가기준 2: [자료 3]에서 학업 성취도가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로 하락하는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일수록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 (또는 주당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6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p>
1점	[문항 3]	<p>평가기준 1: [자료 4]에서 자기조절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설명</p>
2점		<p>평가기준 2: ① 제시문 [다]에서 사회·문화 현상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기술하면 (1점) ② 제시문 [라]에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판매될수록 물놀이 사고의 건수가 함께 증가하는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물놀이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기온이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물놀이를 찾는 사람의 수를 모두 증가시키기 때문임을 기술하고 자기조절능력도 높은 기온처럼 학업성취도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유추하면 (1점) ①만 쓰면 1점, ①과 ②를 모두 쓰면 2점, ②만 쓰더라도 2점</p>
1점		<p>평가기준 3: 제시문 [나]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제시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학업 성취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의 문제점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사용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함</p>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I

핵심개념 및 용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좌극한

예상 소요 시간

25분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25점)

이차방정식 $ax^2+bx+c=0$ 의 두 근을 α, β 라고 하면

$$\alpha + \beta = -\frac{b}{a}, \quad \alpha\beta = \frac{c}{a}$$

[출처: 수학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직선 $\ell: y=mx+m(0 < m < 1)$ 과 원 $C: x^2+y^2=1$ 의 교점 중 x 좌표가 더 큰 점을 P , 직선 ℓ 과 y 축의 교점을 Q , 좌표가 $(0, 1)$ 인 점을 R 이라고 하자.

점 P 와 직선 $y=1$ 사이의 거리를 $f(m)$, 삼각형 PQR 의 넓이를 $g(m)$ 이라고 할 때, $\lim_{m \rightarrow 1^-} \frac{f(m)}{g(m)}$ 의 값을 구하시오.

출제의도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라는 기하적인 정보와 이차방정식의 해라는 대수적인 정보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학적 문해력과, 관련 정보를 함수로 표현하고 극한값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수학적 서술능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원 C 와 직선 ℓ 의 식으로부터 문제가 제시하는 점 P, Q 의 좌표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함수 $f(m), g(m)$ 의 식을 올바르게 찾아 좌극한의 값을 정확히 계산하는 문제이다.

예시답안

원 C 와 직선 ℓ 의 교점은 연립방정식

$$\begin{cases} x^2 + y^2 = 1 \\ y = mx + m \end{cases}$$

의 해이다. 따라서 점 P 의 x 좌표는 다음 이차방정식

$$x^2 + (mx + m)^2 = 1 \Rightarrow (m^2 + 1)x^2 + 2m^2x + m^2 - 1 = 0$$

의 두 근 중에서 더 큰 값이다. 이때 원 C 와 직선 ℓ 의 한 교점이 $(-1, 0)$ 이므로, 방정식의 한 근은 $\alpha = -1$ 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다른 근 β 는 $\alpha\beta = \frac{m^2 - 1}{m^2 + 1}$ 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beta = \frac{1 - m^2}{1 + m^2}$ 이고 $\alpha = -1 < \beta$ 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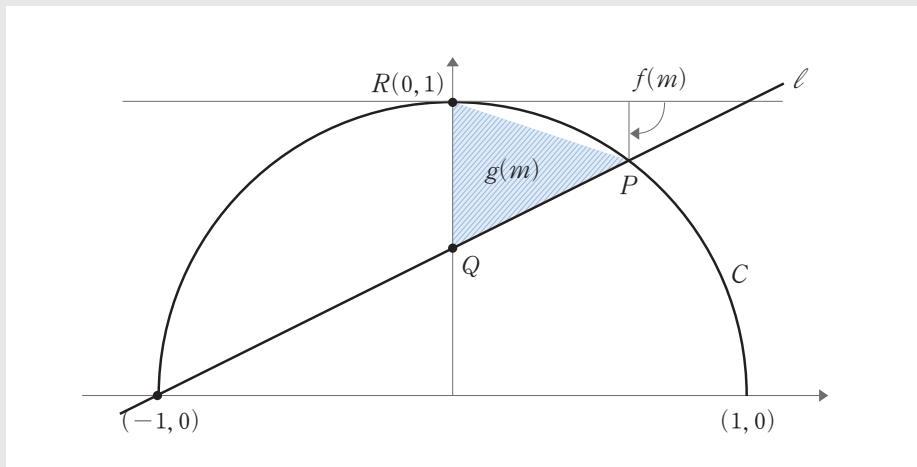
점 P 의 x 좌표는 $\frac{1 - m^2}{1 + m^2}$ 이다. 또한 점 P 는 직선 ℓ 위의 점이므로 P 의 y 좌표는 $\frac{2m}{1 + m^2}$ 이고,

점 P 와 직선 $y=1$ 사이의 거리 $f(m)$ 은 $f(m) = 1 - \frac{2m}{1 + m^2} = \frac{(1 - m)^2}{1 + m^2}$ 이다.

한편 점 Q 의 좌표는 $(0, m)$ 이므로, 삼각형 PQR 의 밑변을 QR 로 두면, 삼각형 PQR 의 넓이 $g(m)$ 은 아래와 같다.

$$g(m) = \frac{1}{2} \times (1 - m) \times \left(\frac{1 - m^2}{1 + m^2} \right) = \frac{(1 - m)^2(1 + m)}{2(1 + m^2)}$$

그러므로 $\lim_{m \rightarrow 1^-} \frac{f(m)}{g(m)} = \lim_{m \rightarrow 1^-} \frac{2}{1 + m} = 1$ 이다.



채점기준

- 15점** 원과 직선 ℓ 의 식을 이용하여 두 교점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추가 조건을 이해하여 P, Q 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 10점** P, Q, R 의 좌표를 이용하여 함수 $f(m), g(m)$ 의 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이로부터 좌극한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II, 미적분

핵심개념 및 용어 내분점,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부분적분법

예상 소요 시간

25분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십시오. (25점)

두 점 $A(x_1, y_1), B(x_2, y_2)$ 를 이은 선분 AB 를 $m:n$ ($m>0, n>0$)으로
내분하는 점 P 의 좌표는

$$\left(\frac{mx_2 + nx_1}{m+n}, \frac{my_2 + ny_1}{m+n} \right)$$

[출처: 수학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수열 $\{x_k\}$ 는 첫째항이 0, 공차가 $\frac{1}{n}$ 인 등차수열이다(단, n 은 자연수). 점 $P_k(x_k, 0)$ 과 함수 $f(x) = |2x-1|e^{2x}$ 의 그래프 위의
점 $G_{k+1}(x_{k+1}, f(x_{k+1}))$ 에 대하여 점 H_k 는 선분 $P_k G_{k+1}$ 을 2: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자.

삼각형 $P_k H_k P_{k+1}$ 의 넓이를 A_k 라고 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A_k$ 의 값을 구하십시오.

출제의도



수열과 함수, 내분점의 개념을 바탕으로 묘사된 점의 좌표를 이해하는 수학적 문해력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급수의
합의 극한을 정적분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계산하는 수학적 서술능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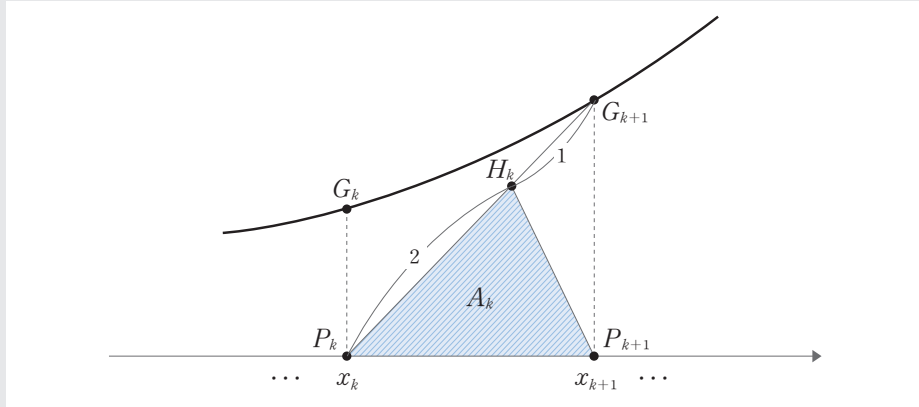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내분점의 정의를 이용하여 점의 좌표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시된 급수의 합을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 정적분의 성질과 부분적분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이다.

예시답안

등차수열 $\{x_k\}$ 의 일반항은 $x_k = \frac{k-1}{n}$ 이므로 P_k 의 좌표는 $(\frac{k-1}{n}, 0)$ 이고 G_{k+1} 의 좌표는 $(\frac{k}{n}, f(\frac{k}{n}))$ 이다.

따라서 H_k 의 좌표는 내분점의 정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left(\frac{2 \cdot \frac{k}{n} + \frac{k-1}{n}}{3}, \frac{2f(\frac{k}{n}) + 0}{3} \right) = \left(\frac{3k-1}{3n}, \frac{2}{3}f(\frac{k}{n}) \right)$$



삼각형 $P_k H_k P_{k+1}$ 의 밑변을 선분 $P_k P_{k+1}$ 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는 $\frac{1}{n}$ 이고 높이는 H_k 의 y 좌표인 $\frac{2}{3}f(\frac{k}{n})$ 이다.

따라서 $A_k = \frac{1}{3n} f(\frac{k}{n}) = \frac{1}{3n} |2k - 1| e^{\frac{2k}{n}}$ 이고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A_k =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frac{1}{3} f(\frac{k}{n}) \frac{1}{n}$ 이다.

한편, 닫힌구간 $[0, 1]$ 에서 $\frac{1}{3}f(x)$ 는 연속이므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아래 식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A_k &= \int_0^1 \frac{1}{3} f(x) dx = \int_0^1 \frac{1}{3} |2x-1| e^{2x} dx \\ &= \frac{1}{3} \int_0^{1/2} (1-2x) e^{2x} dx + \frac{1}{3} \int_{1/2}^1 (2x-1) e^{2x} dx \end{aligned}$$

부분적분법으로 $\int (1-2x)e^{2x} dx$ 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nt (1-2x)e^{2x} dx = \frac{1}{2} (1-2x)e^{2x} + \int e^{2x} dx = \frac{1}{2} (1-2x)e^{2x} + \frac{1}{2} e^{2x} = (1-x)e^{2x}$$

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답을 얻는다.

$$\begin{aligned}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A_k &= \frac{1}{3} [(1-x)e^{2x}]_0^{1/2} + \frac{1}{3} [(x-1)e^{2x}]_{1/2}^1 \\ &= \frac{1}{3} \left(\frac{e}{2} - 1 + 0 + \frac{e}{2} \right) = \frac{e-1}{3} \end{aligned}$$

채점기준

- 10점** 수열 x_k 와 함수 $f(x)$, 내분점의 정의를 이용하여 점 H_k 의 좌표를 계산하고, P_k, G_{k+1}, H_k 의 좌표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 A_k 의 식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 15점** 급수의 합 $\sum_{k=1}^{\infty} A_k$ 을 정적분으로 바꾸어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다.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핵심개념 및 용어 수열의 합

예상 소요 시간

25분

문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십시오. (25점)

수열 $\{a_n\}$ 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 $a_1 + a_2 + a_3 + \dots + a_N$ 을 합의 기호 \sum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a_1 + a_2 + a_3 + \dots + a_N = \sum_{n=1}^N a_n$$

[출처: 수학I 「수열의 합」]

수열 $\{a_n\}$ 이 $a_{2n-1}=0, a_{2n}-a_n=n(n=1, 2, 3, \dots)$ 을 만족시킨다. 이때 $\sum_{n=1}^{128} a_n$ 의 값을 구하십시오.



출제의도

수열 $\{a_n\}$ 의 조건과 수열의 합의 성질을 이해하는 수학적 문해력과, 습득한 정보와 수열의 합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수열의 합을 계산이 가능한 쉬운 수열의 합으로 바꾸는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수열 $\{a_n\}$ 의 조건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주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없애고, 짝수 번째 항을 보다 앞의 항으로 치환하여 주어진 수열의 합을 계산이 수월한 수열의 합으로 전환하여 계산하는 문제이다.

예시답안

급수의 제 k 항까지의 부분합 $\sum_{n=1}^k a_n$ 을 S_k 라 하자. 그러면 $a_{2n-1}=0$ 이고 $a_{2n}=a_n+n$ 이므로 부분합을 홀수항의 합과 짝수항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S_{128} &= \sum_{n=1}^{128} a_n = \sum_{n=1}^{64} a_{2n-1} + \sum_{n=1}^{64} a_{2n} = \sum_{n=1}^{64} (a_n + n) = S_{64} + \frac{64 \cdot 65}{2} \\ S_{64} &= \sum_{n=1}^{64} a_n = \sum_{n=1}^{32} a_{2n-1} + \sum_{n=1}^{32} a_{2n} = \sum_{n=1}^{32} (a_n + n) = S_{32} + \frac{32 \cdot 33}{2} \\ &\vdots \\ S_2 &= S_1 + \frac{1 \cdot 2}{2} \end{aligned}$$

위 식의 좌변과 우변을 각각 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S_{128} &= S_1 + \frac{1 \cdot 2}{2} + \frac{2 \cdot 3}{2} + \dots + \frac{32 \cdot 33}{2} + \frac{64 \cdot 65}{2} \\ &= 0 + 1 + 3 + 10 + 36 + 136 + 528 + 2080 \\ &= 2794 \end{aligned}$$

채점기준

12.5점 수열의 두 조건을 이용하여 $S_{128} = S_{64} + \frac{64 \cdot 65}{2}$ 로 계산할 수 있다.

12.5점 비슷한 방법으로 $S_{64}, S_{32}, S_{16}, \dots, S_2, S_1$ 사이의 관계를 구하여 S_{128}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 4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핵심개념 및 용어 치역,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예상 소요 시간

25분

문제 4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논제에 답하시오. (25점)

함수 $f: X \rightarrow Y$ 에서 정의역 X 의 원소 x 에 공역 Y 의 원소 y 가 대응할 때, 이것을 기호로 $y=f(x)$ 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f(x)$ 를 x 에서의 함숫값이라 하고, 함숫값 전체의 집합 $\{f(x) | x \in X\}$ 를 함수 f 의 치역이라고 한다.

[출처: 수학 「함수」]

집합 $A = \{1, 2, 3, 4, 5, 6\}$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 A \rightarrow A$ 의 개수를 구하시오.

- ① 집합 A 의 모든 원소 x 에 대하여 $f(f(x)) = f(x)$
- ② 집합 A 의 모든 원소 x 에 대하여 $f(x) \leq 3$

출제의도



주어진 함수의 조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수학적 문해력과 이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경우의 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계산하는 수학적 서술능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주어진 함수의 조건이 설명하는 치역의 모습과 치역에 속하는 원소의 함숫값의 조건을 올바르게 묘사하고, 경우를 적절하게 나누어 각 경우에 해당하는 함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이다.

예시답안

$a=f(b)$ 라 가정하면 조건 ①에 의해 $f(a)=f(f(b))=f(b)=a$ 이다.

따라서 함수 f 는 치역에서 항등함수이다.

또한 조건 ②에 의하여 치역은 집합 $\{1, 2, 3\}$ 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경우

이 경우 함수 f 는 상수함수이며 치역은 $\{1\}$, $\{2\}$ 또는 $\{3\}$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3이다.

2)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

예를 들어, f 의 치역이 $\{1, 2\}$ 라 가정하면 $f(1)=1$, $f(2)=2$ 이어야 한다.

한편 $f(3)$, $f(4)$, $f(5)$, $f(6)$ 은 각각 1 또는 2이므로 이 경우 함수 f 의 개수는 $2^4=16$ 개이다.

치역이 $\{1, 3\}$, $\{2, 3\}$ 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16 \cdot 3 = 48$ 이다.

3)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

치역이 $\{1, 2, 3\}$ 이므로 $f(1)=1$, $f(2)=2$, $f(3)=3$ 이고 $f(4)$ 와 $f(5)$, $f(6)$ 은 각각 1, 2 또는 3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3^3=27$ 이다.

그러므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3+48+27=78$ 이다.

채점기준

10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치역에서 $f(a)=a$ 라는 조건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다.

15점

함수의 치역의 모양에 따라 경우를 올바르게 나누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논술우수자전형 관련 FAQ



지원자격 관련

Q1

송실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Q2

논술우수자전형 지원 시 수능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나요?

논술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전 계열 공통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Q3

논술우수자전형 비교평가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비교평가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평가대상자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수험생이 취득한 논술점수에 비례해서 교과성적을 부여합니다.

- 01 2024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 02 검정고시 출신자
- 03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



논술고사 관련

Q1

논술고사에서 수험표가 꼭 필요한가요?

수험표는 지참하지 않아도 고사 응시는 가능합니다만, 고사장소와 수험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고사 시에는 지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Q2

논술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볼펜, 연필, 사인펜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 필기구를 지참해야 하며, 검은색 외 다른 색상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Q3

개인용 수정테이프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개인이 소지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 정보란'에 오기입한 경우는 손을 들고 감독관이 제공하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답란'에는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을 금지합니다.

[필기사항]	모집 단 위	본교 수험번호(2024논술우수자전형)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1	2	3	4	1	2	3	4											
1. 학교, 전공, 입학년도, 입학, 시험 등 상세정보																				
2.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3.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4.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5.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6.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7.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8.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9.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10. 수능최저점 일치여부(2024년)																				

모의논술 안내

신청 및 응시기간 2026.08.05.(수) ~ 08.08.(토)

참가방법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및 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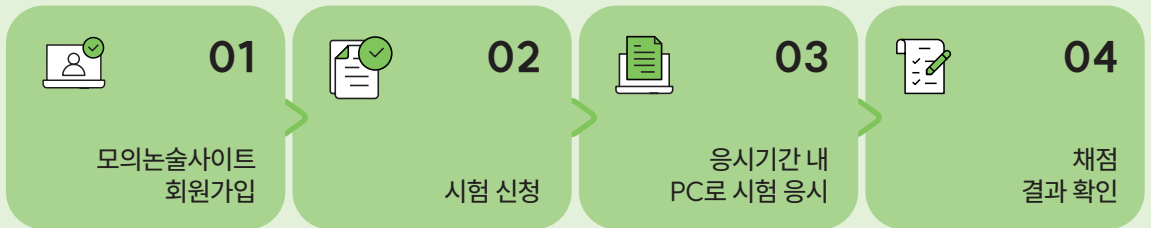
※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에서 접수 가능

모의논술 응시 관련

계열	응시 가능인원	응시 방법
인문	400명	온라인상 답안 직접 작성
경상	400명	온라인상 답안 직접 작성 + 답안 양식 출력 및 작성 후 업로드
자연	400명	답안 양식 출력 및 작성 후 업로드

※ 결과 조회 기간 중 응시자별 점수 및 계열별 평균점수를 공개함
 ※ 개별 첨삭은 제공하지 않으며, 해설·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공개 예정
 ※ 계열별 응시 가능인원 초과 시 자동 마감

모의논술 진행과정



답안지 업로드 흐름 경상, 자연계열만 해당



결과조회 기간 2026.08.26.(수) ~ 09.01.(화)



인문계열



불어불문학과



최서영



CHOI SEO YOUNG

끝까지
믿고
끝내 해내다

1. 논술 준비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준비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함께 들려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평소 수행평가 글쓰기에서 제 잠재력을 눈여겨보신 선생님의 추천과 부모님의 권유를 계기로 논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논술의 구조와 사고의 흐름, 그리고 글쓰기의 기본 원칙을 차근차근 익히며 기초를 다져 나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쓴 부분은 **제한된 시간 안에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답안지에 완성도 있게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논리를 떠올리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설득력 있는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출제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과 함께, 매주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간을 재고 답안을 작성하며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입시 기간 동안 '내신, 논술, 수능' 준비에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나누어 썼는지, 본인만의 전략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저의 가장 큰 입시 전략은 **어느 한 전형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수능 공부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논술 수업과 첨삭을 통해 논술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시험 약 2주 전부터 논술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내신 준비에 집중했으며, 시험이 끝난 뒤에는 다시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며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각 전형을 시기별로 구분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도, 어느 하나도 완전히 놓지 않는 것이 저만의 전략이었습니다.

3. 본인이 느낀 '승실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험한 승실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은 지나치게 어렵거나 난해한 시험이라기보다, 기본기를 충실히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화려한 표현보다는 탄탄한 독해력과 논리적인 구성 능력입니다.** 저는 제시문을 읽은 직후 곧바로 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먼저 연습장에 핵심 키워드와 논점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설계한 뒤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서론·본론·결론의 분량을 미리 계획하여 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논술은 단순히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논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안의 흐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논술고사 당일, 긴장은 되지 않았나요? 시험 당일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긴장을 푸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수험생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2년 동안 준비해 온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였기에 긴장감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실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선 순간부터 학교의 세심한 안내와 배려 덕분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문부터 고사장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홍보대사분들과 수험생을 배려해 주신 감독 교수님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QR 코드를 활용해 고사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수험생 입장에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저만의 긴장 완화 방법이 있다면 초콜릿과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험 전 적당한 당분 섭취는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따뜻한 차는 긴장으로 굳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은 준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험 당일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5. 논술고사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꾸준히 성장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입시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단순한 실패로 남겨두지 않고, 기존 답안과 첨삭 내용을 다시 검토하며 제 글쓰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파이널 기간에는 다른 사람의 답안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제가 가진 장점을 살려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도 불안감에 휘둘리기보다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과 경험을 믿고 차분하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글을 쓰는 사람인지 이해하고, 그 강점을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점이 저만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승실대 인문계열 입학에 꿈꾸며 논술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수험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불안과 고민 속에서 흔들렸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할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고 하루하루 꾸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쌓아 온 노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승실대학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내년에는 승실의 교정에서 선후배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상계열



경영학부



LEE JI HO

이지호

본질을
알면
길이 보인다



1. 논술 준비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준비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논술 준비는 고등학교 3학년 9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논술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9월 모의평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 전략을 정시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N수생들과 함께 응시하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성적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수시 원서 접수 시기와 맞물리면서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내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목표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수시전형에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논술전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쓴 부분은 글의 형식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독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은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을 직접 풀어보고, 해설과 예시 답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입시 기간 동안 '내신, 논술, 수능' 준비에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했는지, 본인만의 전략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시를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신에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이후에는 수능 공부에 약 80%, 논술 준비에 약 20% 정도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능 공부에 집중했고, 일요일에는 한 주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뒤 남은 시간을 활용해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수능 전에 실시되는 논술고사가 있는 주에는 논술 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수능 이후에 치르는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모든 학습 시간을 논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3. 본인이 느낀 '송실대 경상계열 논술'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는지도 함께 들려주세요.

송실대학교 경상계열 논술은 인문논술의 비중이 높고, 수리논술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논술에서는 복잡한 계산보다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활용해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출제 주제는 경상계열의 특성에 맞게 경제·사회 현상이나 시사 이슈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평소 뉴스,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사회 현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논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배경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정작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논술은 자신의 지식을 나열하는 시험이 아니라 문제의 요구에 정확히 답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한 뒤에는 독자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며 핵심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점검했습니다.

4. 모의논술고사는 실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모의논술은 실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식과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 시험 운영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출제 경향과 답안 작성 방식도 미리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을 함께 분석하면서 학교가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 논술고사 당일, 어떤 전략과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나요? 긴장을 관리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논술고사 당일 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시험 직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사장에 일찍 도착해 시험 시작 15분 전까지는 특별한 공부를 하기보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15분 동안 핵심 내용을 점검한 뒤 시험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과도한 긴장감이 줄어들었고, 평소 연습했던 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가장 큰 변수는 결국 긴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긴장 완화 루틴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논술뿐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논술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화된 점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논술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논술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논술을 정답이 없는 비정형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논술도 분명한 기준과 형식이 존재하는 시험이라고 느꼈습니다. 논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적절한 형식에 맞춰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인터뷰 질문의 핵심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와 '강점 또는 차별화된 점'입니다. 따라서 답변 역시 이 두 가지가 독자의 입장에서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논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의 예시 답안을 분석해 보면 답안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술의 형식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연습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화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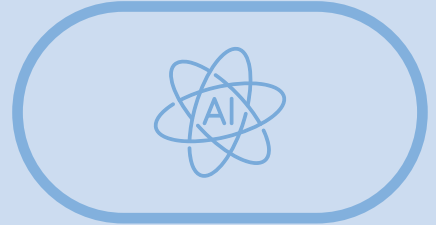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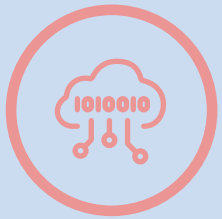
7. 송실대 경상계열 입학을 꿈꾸며 논술전형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라면 아마 입시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노력에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정형화된 학습 방법이 적어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고민되고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송실대학교 경상계열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목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웃으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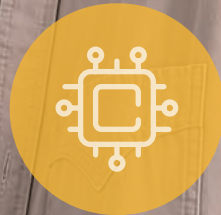
자연계열



시소프트웨어학부

SEO HYEOK JOON 

서혁준



실전 감각이
합격을
완성한다 ✨

1. 논술 준비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준비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논술 준비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수학은 항상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뚜렷하다 보니 내신 성적은 수학 실력에 비해 다소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마침 누나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수리논술을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어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수리논술을 권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능 수학과 같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문제 유형과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수리논술 문제를 접하며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논술 특유의 사고 과정을 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내신, 논술, 수능' 사이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했나요? 본인만의 준비 전략이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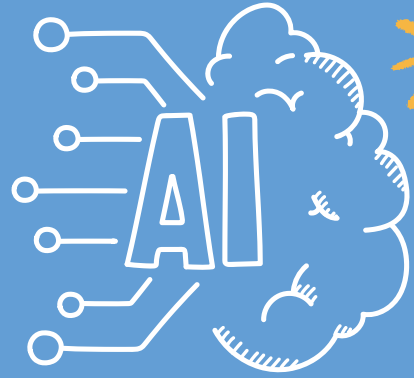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상 내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논술과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시전형은 준비하지 않았고,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만 지원했습니다. 당시 모의고사 성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논술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능을 다소 안일하게 준비했고, 논술전형 지원에 필요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논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재수 기간에는 논술보다 수능 공부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제 준비 전략은 실제 시험 상황을 최대한 재현하며 모의고사와 모의논술을 반복적으로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험장에서 발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숭실대학교 논술시험은 100분 동안 진행되는데, 저는 문제당 10분을 기준으로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고, 최대한 40분 안에 4개 문항을 모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 때마다 답안을 작성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검토한 뒤 한 번에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3. 본인이 느낀 '숭실대 자연계열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문제 유형이나 출제 방식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논술시험이 그렇지만, 숭실대학교 논술은 특히 제시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느꼈습니다. 문제의 핵심 힌트와 출제 의도가 제시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은 뒤에는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수와 난이도에 비해 시험 시간이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뿐 아니라, 풀이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논술은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제 유형은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수학적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석적인 수리논술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응용한 형태의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4. 모의논술고사는 실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모의논술은 실제 시험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 유형과 출제 방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시간 관리와 답안 작성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논술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험 운영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5. 수리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나 연습 방식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실전과 같은 압박 환경에서 공부하기, 다회독 학습하기, 그리고 우수 답안 필사하기입니다. 먼저 시험장은 생각보다 훨씬 긴장되고 부담이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모의논술을 볼 때는 실제 시험 시간보다 더 짧게 시간을 설정해 스스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다회독 학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답안까지 작성하며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답안 작성도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경험하기 위해 다른 대학의 고난도 논술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답안을 필사하며 이상적인 풀이 전개 방식과 서술 순서를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채점 기준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출제자가 어떤 풀이를 의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6. 논술고사 당일, 어떤 전략과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나요? 시험장에서의 에피소드나 팁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평소 준비해 왔던 시험 운영 루틴을 그대로 실천하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평소 비염이 심한 편인데 한 대학의 논술시험장에서 히터가 너무 강하게 작동해 쿨물이 시험지에 떨어질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심한 두통까지 겪으면서 시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준비했다면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실력뿐 아니라 컨디션 관리와 준비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보이는 요소 하나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당일을 위한 세심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숭실대 자연계열 입학에 꿈꾸며 논술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논술 준비 과정은 길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이거나 모의논술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쏟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캠퍼스 맵

- | | | | | |
|------------|------------|------------|-------------|----------|
| 1 문화관 | 6 한경직기념관 | 11 창신관 | 16 조만식기념관 | 21 백마관 |
| 2 안익태기념관 | 7 미래관 | 12 연구관 | 17 진리관 | 22 대운동장 |
| 3 형남공학관 | 8 전산관 | 13 중앙도서관 | 18 학생회관 | 23 승덕경상관 |
| 4 베어드홀 | 9 레지던스홀 | 14 신양관 | 19 벤처중소기업센터 | 24 창의관 |
| 5 한국기독교박물관 | 10 글로벌브레인홀 | 15 웨스트민스터홀 | 20 교육관 | 25 정보과학관 |

- | | |
|-----------------------|----------------|
| A 정문 | G 송실대입구역 3번 출구 |
| B 중문 | H 송실대입구역 4번 출구 |
| C 남문 | |
| D 북문 | |
| E 조만식기념관
지하주차장 진입로 | |
| F 승덕경상관
주차장 진입로 | |



건실한, 충실한, 확실한

우리의 결실, 송실대학교

“실(實)은
송실이다”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Soongsil University

승실대학교 입학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06978)
admission.ssu.ac.kr

입학문의 및 상담

T. 02) 820-0050~53